

‘3연속 역전패’ KIA, 또 흔들리는 불펜... 가을야구도 ‘위태’

9위 두산과의 주말 3연전 스윙패... 정해영·조상우·전상현 모두 부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뒷문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KIA는 최근 9위 두산 베어스에 스윙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쓰라린 3연패를 당한 KIA는 후반기에 8승 1무 13패를 기록, 다시 하반기 성적 리그 최하위가 됐다. 하반기 성적만 놓고 본다면 올 시즌 압도적인 격차로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키움 히어로즈(9승 1무 14패)보다도 승수가 적다.

이로써 KIA(53승 4무 53패)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와 함께 공동 5위에 자리해 간신히 5강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불펜이다.

지난 15-17일 잠실 두산전에서 3연패가 더 빠른 이유는 경기 결과보다 내용 때문이다.

선발진은 말은 바 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 15일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김도현은 3%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지만, 16일 선발 이의리는 6이닝 2실점으로 준수한 투수를 선보였다. 17일에 선발로 출격한 ‘1선발’ 제임스 네일 역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에이스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러나 불펜진은 연일 무너졌다.

지난 15일엔 5-4로 앞선 9회말 정해영이 포수 실책이긴 했으나 동점을 허용하던 11회 말에는 김건국이 안재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았다.

다음 날에도 악몽은 이어졌다.

지난 16일 3-2로 리드를 지킨 9회말에 올라온 정해영이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급히 불을 끄려 올라온 필승조 조상우가 끝내기 2루타를 맞아 다시 역전패를 당했다.

필승조가 연일 흔들리자 그 이튿날인 17일 이범호 KIA 감독은 정해영에 2군행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 감독은 17일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팀에서 가장 좋은 투수를 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정해영이 만루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정해영이 보직에 애착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쓴소리까지 내뱉었다.

이 감독은 정해영의 반자리를 불펜 전상현으로 채웠다. 전상현은 17일 경기 전까지 하반기 평균자책점 0.00으로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믿을맨’이었다.

그러나 전상현마저 17일 경기에서 흔들렸다.

1-0으로 앞선 8회말 1사 1루에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은 양의지에게 2루타를 허용하고 안재석을 자동 고의4구로 내보내며 1사 만루로 몰렸다. 여기서 전상현은 김인태에게 밀어내기로 동점을 내준 뒤 조수행에게 2타점 역전 적시타까지 얻어 맞아 패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KIA의 불펜 불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즌 초반부터 불안 요소로 지적됐던 KIA 불펜은 7월 들어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KIA는 필승조 붕괴로 지난 7월22일 광주 LG 트윈스전부터 29일 광주 두산전까지 7연패 늪에 빠졌다. 연패 기간 팀은 4위에서 7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7월 말에는 이의리가, 8월 초에는 아담 윌러가 복귀하며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발진 얘기다.

불펜 불안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마무리 정해영의 부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그는 올 시즌 6차례 불륜세이브와 6패를 기록했다. 8월 월간 평균자책점은 7.71까지 치솟았다.

필승조 조상우 역시 3번의 불륜세이브 6패로 불안함을 노출했다. 7월 한 달 평균자책점이 14.21에 달해 사실상 붕괴 양상을 보였다.

팀의 뒷문을 확실히 책임져야 할 둘이 12패를 합작했다. 그 사이 KIA는 번번이 역전패를 당한 것은 물론, 연승 기회도 놓쳤다.

정해영은 오는 27일까지 1군 등록이 불가하다. 그 사이 KIA는 7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남은 계투진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해영 복귀가 더 늦어질 경우 남은 불펜진의 짐은 더 무거워진다.

KIA는 오는 19일부터 광주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른 뒤, 또 홈인 광주에서 선두 LG 트윈스와 맞붙는다.

키움은 최하위지만 8월 들어 월간 승률 공동 3위(0.571)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공격력이 매섭다. 선두 LG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자랑한다.

불펜진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KIA에게 가을야구는 ‘남의 집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



제9회 순천시장애 전국장애인댄스포츠대회 성황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순천시장애 전국장애인댄스포츠대회 및 한마음 종합 포매이션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순천을 비롯해 여수, 목포, 광양, 구례 등 전남권과 전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운영진 600여 명이 참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는 휠체어·시각·청각·지적 등 장애 유형별 부문과 학생부·대학부·중년부·시니어부 등 연령대별 포매이션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K-POP 커버댄스 포매이션 부문은 젊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에서 ▲포매이션 대학부, 중년부, 장애인, 청각·지적 라틴 단종목·2종목 부문은 순천시가 ▲포매이션 시니어부, K-pop커버댄스는 광양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 ▲휠체어 class1 스탠다드 단종목w, 싱글, class2 스탠다드 단종목 듀오, 시각 스탠다드 단종목T는 부산광역시 ▲포매이션 장년부, 휠체어 class2 라틴 단종목P, 지적 라틴 단종목c는 여수시가 각각 1위에 올랐다.

▲휠체어 class1 라틴 단종목c 부문에서는 전주시가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개최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장, 체육 관계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선수단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댄스포츠는 도전이자 예술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오늘 대회가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남해안 스포츠 허브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순천/정영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 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1시간 내 교육, 세대 전용 창고 등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영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주)한화/건설 HDC엔지니어링

함평군, ‘2025년 함평천지한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성료

전국 45개 700여 명 참가... 함평나비유소년스포츠클럽, 유소년부(U-14) 우승 영예

‘2025년 함평천지한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3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함평군은 19일 “2025년 함평천지한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난 17일 함평야구장에서 전국 45개 유소년 야구팀과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함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함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함평야구장과 전남야구장, 함평리틀야구장, 함평축구장 등 4개 장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45개 유소년 야구팀, 총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령별 조별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새싹부(U-10) ▲꿈나무부(U-12) ▲유소년부(U-14) ▲주니어부(U-16)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여팀들은 예선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부문별로 ▲새싹부 광주SB유소년야구단 ▲꿈나무부 광주북구유소년야구단 ▲유소년부 함평나비유소년스포츠클럽 ▲주니어부 영동포BC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유소년부(U-14)에서는 함평나비유소년스포츠클럽이 뛰어난 조직력과 기량을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 야구의 저력을 입증했다.

함평군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야구 전지훈련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야구 중심의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지속 추진하며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전국 단위 야구대회 개최이자 전지훈련 최적지로서 입지를 넓혀 ‘야구의 메카’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석 함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아이들이 공 하나에 집중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준비의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대회는 유소년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함평이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주 세계양궁대회 알리기’ SNS 응원 댓글 이벤트

광주시가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알리기 위해 ‘디데이(D-day)응원 댓글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팔로우한 뒤 양궁 국가대표 선수 응원 영상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스토리에’ 올린 후 갈무리(캡처)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광주FC 경기가 열리는 20일에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밖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회 마스코트 ‘에피(E-Pea)’ 인형탈 홍보가 펼쳐진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이벤트를 통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대회 열기가 고조되길 기대한다”며 “양궁대회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와 특별한 관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